역사 기억 전쟁과 역사 글쓰기 윤리—20 세기 중반 중국의 역사전쟁

탕샤오빙 (화둥사범대학)

원문 중국어, 번역 : 홍용일

20 세기 중반의 중국혁명과 전쟁은 그 시대 및 그 이후의 중국의 역사 방향과 사회 변천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뿐만 아니라 사회 각 계층 엘리트, 서민의 일상생활과 정신세계에 미친 영향 또한 지대했는 바, 이들의 역사 기억과 글쓰기는 기억의 장에서 '신들의 전쟁'("诸神之争", 다양한 논객에 의한 '백가쟁명' 현상을 의미-역자 주)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특히 1945-1949 년이라는 이 역사적 시기와 경험을 어떻게 기억하고 해석하고 재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당대 중국인의 아이덴티티와 정신의 삶이 분기되는 지점이었다. 그 시대의 진상을 추적하고 공감대를 탐색하는 것은 사학계가 공공 문화 및 역사 기억 영역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의제로 되고 있다. 본문은 20 세기 중국전쟁과 기억에 관한 역사적 글쓰기,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기술들이 양안삼지 (两岸三地) 에서 야기한 거대한 불일치와 논쟁을 종합함으로써 역사적 기억과 역사적 진실, 진실과 화해, 기억과 망각, 역사와 정의 사이에 얽히고설킨 복잡한 관계를 고찰한다.

■ 탕샤오빙 (唐 小兵／TANG, Xiaobing)
화동사범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역사학 박사, 박사과정생 지도교수, 하버드 옌칭 방문학자.

연구 분야는 주로 청나라 말기 신문사, 20 세기 중국 지식인사와 사상문화사, 좌익문화와 중국혁명, 회고록, 구술사 등 20 세기 중국의 역사기억에 집중되어 있다. 선후로 "현대 중국의 공공여론 - <대공보> '주간 논문'과 <신고> '자유담'을 중심으로", "사거리의 지식인", "민국과의 만남", "서재 위의 근대 중국-어느 누군가의 독서사", "북미학종 (北米学踪) : 밴쿠버에서 보스턴까지" 등 저서를 출판했다. 주요 성과는 "China Information", "뉴스 및 커뮤니케이션 연구', "사림 (史林) ", "중공당사연구", "21 세기"(홍콩), "사상"(타이베이) 등 중국 국내외 저널에 발표했다. 화동사범대학 제 1 회 청년교사 육인 (育人) 공로상, 2014 년 '동양역사평론'지가 선정한 중국 우수 청년역사학자 명예칭호(전국 15 위)를 수상했다.

주요 저서: '전쟁, 고난 및 뉴스 - 항일전쟁기 민간 신문의 여론 동원', "뉴스 및 커뮤니케이션 연구", 2015 년 제 8 호. '민국시기 지식 청년들의 결사 및 좌익화 - 1920-30 년대의 상하이를 중심으로', "중공당사연구", 2017 년 제 11 호. '포스트 5· 4 시대의 가족혁명 및 사회개조 사조-"중국청년", "생활주간", "신보"를 중심으로', '톈진사회과학", 2022 년 2 호.